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영적 전쟁에 능한 민족      성경: 누가복음 12장 35-38, 51-53절

Tag: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눅12:35-38)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2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눅12:51-53)

우리나라는 군사를 통한 전쟁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잘 할 수 있는 민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타민족을 침략해 들어간 유래는 없다.

조선 말 우리나라는 청나라와 손을 잡을 것인지, 일본과 손을 잡을

것인지,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인지, 러시아와 손을 잡을 것인지를 고민하였고,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사분오열 되었다.

지금도 중국 눈치보랴, 미국 눈치보랴 정신이 없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여전히 싸우고 있다.

우리는 틀림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말다툼이다. 참으로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듯 싶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는 듯 싶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아무튼 그러는 동안에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예상되는 반격에 대비하여 방어하는 기술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에 능한 민족이 되었다.

오늘 본문말씀 51-53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가족간에도 분열이 극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는 사상전쟁, 또는 영적인 전쟁을 말한다. 율법과 복음의 심각한 대립을 예언하신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율법에 목을 매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정치는 좌우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좌파가 세로형직사각형이라면, 우파는 가로형 직사각형이다. 그러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정권이 가느냐는 언론을 누가 장악하고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해 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갈등은 율법과 복음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 진리와 거짓의 갈등, 사실과 오해의 갈등이다.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좌우의 갈등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다만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과 대적해야하기 때문이다. 결코 여기에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의 최우선 조건은 진리와 거짓의 분별력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낸다.  
영적전쟁이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을 대적 할 때는 적대적인 태도 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쉽지 않다.  
이 영적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적전쟁은 기본적으로 인질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질들은 여전히 납치범에게 속고 그들의 말을 믿고 있다. 인질들이 속는 이유는 납치범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스스로도 자신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여전히 속이고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훼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인질들 중에서 가능하면 한명이라도 더 구출하려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누구든 이 전쟁을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프레임을 현실적 프레임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편향적이지 않게 되고,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된다.  
(예, 흑백TV(과학적 세계관)-> 칼라TV(칼라TV가 진짜 세계, 영적인 실재까지 포함된 세계). 과거 안테나를 움직이면 칼라 색상이 제대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칼라가 분리된다. RGB-적,녹,청(흰) / CMYK-청록, 자홍, 노랑, (검정) RGB에는 빛이 들어가면 흰색이 되고, CMY에는 검정색이 들어가야 된다.)

4차원의 영성이란 3차원에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교신하는 능력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의 차원이 몇차원 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한단계만 높은 것은 아닐 것이다. (단순히 한 끝 차이는 아니라는 뜻

\*)

‘예언자’는 원어의 의미로 ‘보는자, 듣는자’라는 뜻이 들어있다.

3차원 이상의 세계를 보는 자, 듣는자를 말한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였고, 사울은 강력한 빛을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곁에 있는 자들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 주시는 자가 보게 된다.

원래는 다 볼 수 있는데, 가려진 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할 뿐, 실재로는 존재하는 세상이니, 봉사 코끼리 만지듯이 더듬어 감지해야 한다. 헬렌 켈러처럼.

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자.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니다. 재미있는 공상소설이 아니다. 실재하는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증언들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생활에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한다.

500년 전이 종교개혁이 흑백TV였다면, 두 번째의 종교개혁은 칼라TV가 될 것이다.

오늘은 이제 이 프레임으로 35-38절을 읽어보자. 왜냐면 지금이 마치 캄캄한데 새벽을 기다리는 시대를 교회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종에 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는 저녁에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인 예식을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늦게 도착할 수 있다.

밤이 늦었지만, 신랑을 기다려 맞이해야 한다. 종이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허리를 동이고 빛을 비추고 있어야 한다. 어둠속을 밝혀야 한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아무도 신랑을 기다리거나 새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 신랑이 오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그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